



## “제주돌담 쌓기 등재... 공동체·국제협력이 핵심”

차보영 아태센터 실장, ‘제주 돌담국제세미나’서 강조  
유네스코 ‘메쌓기’ 13개국 등재... “공동체 동의 중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 돌담 쌓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전승주체인 공동체와 국제 협력이 등재 가능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열린 ‘2025 제주 돌담국제세미나’에서 차보영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네트워크코디는 ‘함께 지키는 유산-유네스코무형유산 협약과 등재의 의미’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22일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돌담 쌓기’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단독 등재가 아닌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돌담 쌓기 종목인 ‘메쌓기 지식과 기술’에 ‘제주 돌담 쌓기’를 확대 등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확대

등재 방식을 활용하면 2028년 이전에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쌓기 지식과 기술’은 결합재를 사용하지 않고 돌로 건축물을 짓는 관행을 의미한다. 2018년 그리스를 중심으로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 8개국이 최초로 공동 등재했고, 지난해에는 아일랜드, 안도르,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추가로 확대 등재되면서 현재 13개국이 등재돼 있다.

차보영 실장은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설명하며 “협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은 전승주체인 커뮤니티 즉 ‘공동체’”라며 “무형유산을 운영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산이 무형유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만큼 공



지난달 28일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열린 ‘2025 제주 돌담국제세미나’에서 차보영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네트워크코디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동체가 유산으로 인정하는가, 안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나브루즈’, 2010년 ‘매사냥’, 2015년 ‘줄다리기 의식과 놀이’ 등 다국가 등재 사례를 전하면서 무형유산 확대 등재에서 중요한 점은 공동체의 동의와 국가 간 협력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국가 등재는 여러 나라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유산을 보호하자는 약속을 하고 가는 유산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 차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등재”라며 “무형유산 협약은 이러한 공동 등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마다 50~60건 정도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가 이뤄지지만 확대 등재는 이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시기”라며 “돌담쌓기 종목에 한국이 추가가 된다면 아시아 지역까지도 확장되는 등재 사례로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꽃자왈 숲이 전하는 말”... 흙으로 빛은 조각

조운득 열다섯 개인전

제주 꽃자왈 숲의 생명력을 흙으로 빛은 조각으로 보여준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아트인명도암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조운득 도자조각가의 열다섯 번째 개인전 ‘숲이 전하는 말’이다.

작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화산

섬 제주, 제주돌, 꽃자왈을 그만의 조형방식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시에서는 꽃자왈 숲의 생명력과 돌과 나무들을 형상화한 도자조형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꽃자왈 숲의 돌과 나무들과의 유기적 관계성에 주목하며 돌에서 나무가 탄생하고 나무를 뚫고



조운득의 ‘돌이면서 허다’.

돌이 자라는 원시적 생명력을 조각적으로 풀어냈다. 전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다.

박소정기자

## 탐라도서관 “미리 크리스마스”... 체험 운영

20~21일 연말 프로그램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이달 20~21일 이틀간 도서관 강의실에서 연말 특별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보내는 미리 크리스마스’를 운영한다.

20일에는 초등학생 1~3학년을 대

상으로 매듭을 이용한 마크라메 인형을 만들며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해소하는 ‘나의 걱정을 매듭짓는 행복인형 만들기’와 성인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도어벨을 만들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행운을 여는 마크라메 도어벨 만들기’가 진행된다.

21일에는 초등학생 3~4학년이 자신이 상상하는 산타와 루돌프 모습을 보틀케이크에 표현하는 시간과 초등학생 1~2학년이 다양한 모양의 쿠키에 아이싱을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으로 꾸며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여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제주도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프로그램마다 각 2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박소정기자

## 해군 군악대와 함께하는 작家的 산책길 송년음악회

해군 군악대와 함께하는 ‘2025년 작家的 산책길 송년음악회’가 오는 12월 6일 오후 4시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지역주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노크&(앤)어린이뮤지컬 공연단과 제주 해군 군악대 밴드를 비롯해 ‘장난감병정’, ‘문밖에 있는 그대’ 등을 부른 가수 박강성이 함께해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작家的 산책길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 행사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전화 064-732-1963)으로 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 영화觀 주토피아2

### 이토록 교훈적인 모험

나도 내가 맘에 들기 어려운데 하물며 타인은 어떨겠는가. 오손도손 정겹게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평화로운 풍경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안전과 평화를 위해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 옷깃만 부딪쳐도 인연이라는 옛말은 사어가 된 것 같은 지금의 우리들,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굳이 부딪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타인을 조사하고 온 힘을 다해 다름을 피해간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는 전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전편을 이어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한다. 2016년 국내에서도 47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모았던 ‘주토피아’ 시리즈의 전편이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며 누구나 갖고 있는 꿈과 용기에 대한 응원을 선포했던 ‘주토피아2’는 그 영역을 훌쩍 넓혔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꿈을 꾸든’이라는 개인의 영역을 다루던 전편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로 함께 하려면’이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주디는 핸디캡을 뚫고 자신의 원하는 꿈인 정의로의 경찰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여전히 조급함을 떨치지 못한다. 그의 파트너인 닉이 아웃사이더 기질과 계급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성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 둘은 각종 범죄 사건들을 해결해가며 각자가 가진 장점이 시너지로 완성되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런데 파트너십이 공고해질수록 서로가 가진 단점 또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한결 가까워졌지만 그만큼 또 불편해지는 순간들. 주디와 닉은 이 변화 속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내쳐진 살모사 게리의 속사정을 알게 된다. 주토피아가 단지 포유류들만을 위한 낙원일 수 있다는



영화 ‘주토피아2’

때 아픈 반성이 닉과 주디에게 새로운 숙제가 된다.

‘주토피아2’는 캐릭터의 면면을 넓게 펼치는 쪽을 택한 만큼 이야기의 공간 역시 시원스레 확장시킨다. 새롭게 등장한 살모사 게리가 공간을 가로지르며 움직일 때 전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전해지고 이는 사고의 유연함을 촉구하는 작품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움직임으로도 느껴진다. 예상하듯 ‘주토피아2’는 권선징악의 해피엔딩을 향하는 영화다. 약한 욕망을 품은 캐릭터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들의 합심이 가장 큰 에너지가 되는 것도 예상한 그대로다.

너와 나도, 우리와 또 다른 우리도 언제나 다를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이 귀여운 동화는 모르지 않는다. 다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냈던 순간, 주고 받은 잊혀지지 않을 말들이 그 사이를 언제든 건널 수 있는 다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너무 달랐던 타인들이 조금씩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여정만큼 흥미진진한 어드벤처가 또 있을 까. 이토록 교훈적인 모험이라면 몇 번이고 기꺼이 복습할 마음이 든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주말에 떠나는 1박2일 여행

남도기행

1박2일 여행

다랭이 마을

원예예술촌

오동도 / 유람선

독일마을

순천만국립공원

# 고품격

# 주말 남도기행 1박2일

# 노팁! 노옵션!

현지 전문 가이드 동행

**1일차(토)** | 제주공항 출발(08시 20분) - 광주공항 도착 후 남해 이동 - 중식(멸치삼밥정식) - 남해원에 예술촌 - 독일마을 관광 - 다랭이 마을 - 석식(꽃게탕정식) - 호텔

**2일차(일)** | 조식(통장어탕) - 오동도 관광 및 유람선 - 중식(계장백반+생선구이정식) - 순천만 국립공원 관광 - 광주공항 출발(18시 15분)

출발일 (선착순 마감)		포함내역	요금 (1인 기준)	
2025년	12월 27일	왕복 항공료, 숙박료, 입장료, 차량료	2인 1실 기준	329,000원
2026년	1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조식1회, 중식2회, 석식1회	3인 1실 기준	319,000원
	2월 7일, 14일(추가요금), 21일, 28일(추가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4인 1실 기준	309,000원

\*20인 이상 모객시 출발

Since 1996

협찬

**JEJUair 제주항공**

문의 ■ 064-744-9111